

# 베이스 기타의 핑거 피킹에 관한 연구

장문권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실용음악과

e-mail:moongunz@hanmail.net

## A Study on the Finger Picking of Bass Guitar

Moon-Kweon Jang

Dept of Applied Music, Sangmyung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 요약

본 논문은 베이스 기타의 피킹 방법 중에서 오른손가락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핑거 피킹에 관한 연주 방법과 연습 방안에 대한 논문이다. 일렉 베이스 기타의 초기 핑거 피킹은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 연주법과 기타의 핑거 피킹에 의한 모방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피킹이 전통적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음악 장르의 발전에 맞는 연주법과 새로운 연주자들에 의해 새롭게 고안된 여러 손가락을 이용한 연주법으로 쓰리 핑거와 나아가 포 핑거 피킹으로 발전해왔다. 이에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되는 연주 방법들의 예시를 통해 기초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해주어 핑거 피킹의 응용력을 키우고, 추후 실질적인 연주를 위한 기본적인 연주법을 연구하였다. 전통적인 두 핑거 피킹에 비해 변칙적이고 다양한 연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기 다른 손가락의 터치나 음색을 일괄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8비트나 16비트를 중심으로 연주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 되었지만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선율의 연주를 할 때 연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베이스 기타의 핑거 피킹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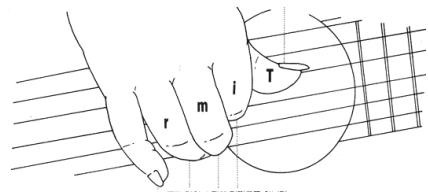
## 1. 서론

## 2. 본론

베이스 기타의 오른손 연주법은 콘트라베이스의 피치카토(Pizzicato)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식은 클래식 기타의 연주법에서 발전해왔다.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가 만들어지고 개량되어지면서 더욱 더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되고 있다. 일반적인 오른손 핑거링의 연주법은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여 번갈아가며 튕기는 형태의 연주법으로 악기의 탄생 때부터 이어져 왔다[1]. 하지만 이후에는 엄지로 현을 때려서 내는 썸(Thumb) 주법과 검지로 현을 걸어서 당기는 플럭(Pluck) 주법을 사용한 슬랩(Slap)주법이 널리 연주되었다. 물론 기타의 영향으로 인한 피크를 사용한 주법과 스트로크(Stroke) 주법 등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역시 기타 연주에서 착안된 태핑(Tapping) 연주 및 팜 뮤트(Palm Mute)또한 중요한 연주법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주법 중에서 전통적인 오른손 핑거링 연주법인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 두 핑거 피킹(Two Finger Picking)에서 벗어나 엄지, 검지, 중지, 약지를 다양하게 교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연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른손 핑거 방법 중에서 크게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한다. 오른손 연주에서 가장 흔한 연주는 핑거 피킹, 슬랩, 스트로크 연주이며, 가장 핵심이 되는 손가락은 엄지, 검지, 중지이지만 나아가서 약지까지 사용한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약지를 사용한 포 핑거 피킹(Four Finger Picking)은 현대 대중음악의 다양한 사운드를 내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엄지를 T(Thumb), 검지를 i(index), 중지를 m(middle), 약지를 r(ring)로 약자로 표기한다[2].



[그림 1] 기타의 오른손가락 표기

### 2.1 검지, 중지를 이용한 두 핑거 피킹

일반적인 핑거 피킹은 [악보 1]과 같이 연주한다. 물론 i와 m을 바꿔서 연주하여도 된다. 이렇게 두 개의 핑거 피킹 연주는 기타의 피크 피킹의 다운과 업 피킹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피킹에 약지를 응용한 피킹은 [악보 2]와 같이 연주할 수 있다.



[악보 1] i와 m을 사용한 핑거 피킹 예시



[악보 2] r, m, i를 사용한 핑거 피킹 예시

## 2.2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한 쓰리 핑거 피킹

약지를 이용하여 연주하는 쓰리 핑거 피킹(Three Finger Picking)에는 [악보 2]처럼 r, m, i를 순서대로 연주할 수 있으며, i, m, r 순서로도 연주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선율에서는 교차하는 손가락이 교차하는 연주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연주를 위해서는 우선 예시처럼 일정한 비트에서 연습이 필요하다. [악보 3]은 일정하게 비트를 만들 수 있는 핑거 피킹이다. 2배수로 이루어지는 비트에서 용이하다.



[악보 3] i, m, r, m 순서로 이루어진 핑거 피킹 예시

세 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시에는 2배수로 이루어지는 비트보다는 [악보 4]와 같이 한 박에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된 리듬에서 더욱 편리하게 연주할 수 있다.



[악보 4] 1박에 3개의 음으로 구성된 리듬의 핑거 피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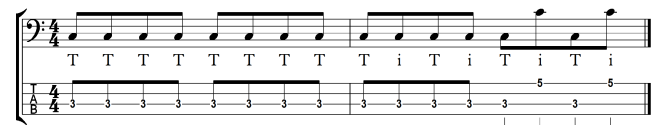
물론 [악보 4]의 첫마디의 i, r, m연주를 i, m, r로 연주를 할 수도 있지만 i에서 m으로 연주보다는 i에서 r로 연주하는 것이 두 손가락이 서로 길이가 비슷하여 빠르게 이동해야하는 연주 시에는 훨씬 편리할 것이다. 두 번째 마디의 3연음에서는 i, r, m 방법과 i, m,

r의 방법도 있겠지만 r, m, i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의식적으로 약한 약지에 힘을 더하게 되어서 보다 안정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베이스 연주에 있어서 어느 손가락을 사용하든지 고른 터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악센트를 주고자 하는 손가락에는 언제나 힘을 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연습해야 하는 것으로 중요한 연습과정이다.

## 2.3 엄지를 포함한 쓰리 핑거 피킹

핑거 피킹에 있어서 엄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양한 변칙적인 주법을 만들 수 있다. 클래식 기타의 엄지 연주법을 모방하여 피킹 할 수 있으며, 특히 팜 뮤트 연주 시의 엄지 연주는 이제는 일반적인 연주처럼 익숙해져 있다.

[악보 5]는 엄지로 피킹하기 위한 첫 번째 거쳐야 할 연습 과정이다. 우선 첫 마디처럼 엄지만을 사용하여 연습한 뒤에 두 번째 마디처럼 검지와 함께 연습한다. 이 연주에서 중요한 부분은 i와 T가 함께 연주할 때는 두 손가락의 터치가 비슷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T와 다른 손가락의 음색이 상이할 시에는 굳이 엄지를 이용한 연주가 필요 없을 것이며, 다른 손가락으로 연주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악보 5] T와 i를 이용한 핑거 피킹

엄지와 함께 검지, 중지를 이용하여 세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도 할 수 있다. 이 연주는 아브라함 라보리엘(Abraham Laboriel)이 즐겨 쓰는 연주이며, 약지를 포함한 포 핑거(Four Finger)연주는 매튜 게리슨(Matthew Garrison)이 창시한 기법으로 이제는 하나의 핑거 주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3].



[악보 6] T, i, m 순서로 이루어진 핑거 피킹 예시

[악보 6]은 T, i, m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비트를 연주하는 방법이다. 이 연주도 역시 모든 손가락의 터치가 고른 밸런스가 나오도록 연습해야한다. [악보 7]은 T, i, m, i로 순서를 정하여 연주하면 규칙적인 반복 패턴에서 T가 첫 번째 손가락으로 배정되도록 하여 일괄적인 연주에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의 코드 아르페지오 연주도 쉽게 연주할 수 있다. 세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면 [악보 4]와 같이 한 박자에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된 연속적인 패턴에서 유리한 연주이다. [악보

8]과 같이 첫 번째 마디의 옥타브 연주 및 두 번째 마디의 연속적인 아르페지오에서 편리한 연주를 할 수가 있다.

[악보 7] T, i, m, i 순서를 이용한 핑거 피킹 사용 예시

[악보 8] T, i, m 순서를 이용한 핑거 피킹 사용 예시

2.4 엄지를 포함한 포 핑거 피킹

현재는 클래식 기타처럼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포 핑거 피킹 연주가 개발되어 피킹에 사용되고 있다. 약지를 뺀 나머지 손가락을 모두 활용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네 개의 손가락 사용으로 인해 정형화된 8비트, 16비트 연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의 손가락의 길이 및 힘의 배분이 서로 다르기에 고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특히 빠른 연주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악보 9] T, i, m, r을 이용한 포 핑거 피킹 사용 예시 1

[악보 9]와 같이 각 현에서 포 핑거를 사용하여 연주하면 비트 연주나 현의 이동에서 편리하게 연주 할 수 있다. 꼭 T, i, m, r순서를 지켜 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T를 박자의 앞에 두는 것은 네 개의 손가락이 순서가 엉켜서 연주 되는 것 보다 훨씬 손가락의 배분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선율연주에서는 굳이 이러한 순서를 지켜서 연주 할 필요는 없지만 연습 단계에서는 이 순서로 우선 연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보 10] T, i, m, r을 이용한 포 핑거 피킹 사용 예시 2

[악보 10]은 T와 i, m과 r을 각 현에서 연주하는 것이며, 두 번째 마디처럼 현을 건너뛰거나 코드 연주에 사용할 수 있다. [악보 11]은 각 현에서 하나의 손가락을 배분하여 연주하며,

[악보 11] T, i, m, r을 이용한 포 핑거 피킹 사용 예시 3 두 번째 마디 역시 코드 연주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피킹이다. 앞서 제시한 악보들은 저음의 첫 음을 T로 시작한 연주법이며, [악보 12]는 고음 현에서 먼저 T, 저음 현에서 나머지로 이동되는 피킹이다. [악보 13]은 한 박자에 4개의 음으로 구성된 리듬에서 사용하면 편리한 피킹이 될 수 있다.

[악보 12] T, i, m, r을 이용한 포 핑거 피킹 사용 예시 4

[악보 13] T, i, m, r을 이용한 포 핑거 피킹 사용 예시 5

3. 결론

베이스 기타 오른손 핑거 피킹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손가락을 자유롭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손가락으로 피킹을 하여도 연주자 자신이 원하는 터치와 음색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투 핑거 피킹으로 연주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시대에는 끊임없이 연주의 방법 변화하고 있기에 어쩌면 새로운 피킹의 발전은 당연할 것이다. 세 개, 네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연습과정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비트 위주의 연습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지만, 추후 복잡하고 다양한 선율의 연주에서도 다양한 피킹이 연구된다면 베이스 기타의 핑거 피킹 연주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http://gmmusic.kr/article/%EC%95%85%EA%B8%B0%EC%A7%80%EC%8B%9D/1002/3779/?page=5> 2022년 05월 19일 검색 인용.  
 [2] <http://gmmusic.kr/article/%EC%95%85%EA%B8%B0%EC%A7%80%EC%8B%9D/1002/3779/?page=5> 2022년 05월 17일 검색 인용.  
 [3] <https://namu.wiki/w/%EB%B2%A0%EC%9D%B4%EC%A4%A4%20%EA%B8%B0%ED%83%80?rev=2515#s-7.1> 4 2022년 05 18일 검색 인용.